



기획재정부

##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배포시	배포 일시	2023. 3. 14.(화) 07:30
기획재정부 <총괄>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귀범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김형선 (hskim5495@korea.kr)

##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3.14.(화) 07:30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한국은행 부총재 이승현  
경제수석 최상목

- 금일 회의에서는 美 실리콘밸리 은행(SVB) 사태와 관련한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美 재무부·연준 등의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 점검하였음.
- 아울러, 관계기관간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에 대한 파급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 (별첨)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총괄>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귀범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김형선 (hskim5495@korea.kr)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책임자	과 장 오재우 (044-215-4710)
		담당자	사무관 권용준 (kwon54yj@korea.kr)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4-215-5130)
		담당자	사무관 박종운 (jwpark416@korea.kr)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고상범 (02-2100-2850)
		담당자	사무관 이정찬 (jeongchanlee@korea.kr)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책임자	팀 장 김민식 (02-759-4181)
		담당자	조사역 진형태 (htjin0603@bok.or.kr)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	책임자	팀 장 김정훈 (02-3145-8180)
		담당자	수 석 최석원 (eco1227@fss.or.kr)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 SVB 사태 관련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평가 】

지난 주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up>1)</sup> 폐쇄를 기점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자  
각국 정부가 신속히 시장안정조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경우,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  
시그니처 은행<sup>2)</sup>까지 폐쇄되면서 시장 불안이 확대되자,  
미국 재무부·연준·연방예금보험공사는  
지난 주말 예금자 보호 및 유동성 지원조치<sup>3)</sup>를 긴급 발표하였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 은행의 해외지점들이 위치해 있는  
여타 국가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HSBC가 실리콘밸리 은행 영국지점을 인수함에 따라  
모든 은행 서비스가 정상 가동된다고 발표하는 한편,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중이며,  
캐나다·이스라엘·인도 정부 등도 유사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각국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간밤 국제금융시장은 다소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1) '22말 기준 총자산 2,090억불로 美 은행중 16위, 캐나다·영국·독일·이스라엘·인도 등에 해외지점 보유

2) '22말 기준 총자산 1,104억불로 美 은행중 29위, 美 전역에 40개 지점 보유

3) BTFP(Bank Term Funding Program) : 최대 1년 만기 담보대출 제공, 금리는 1년물 OIS 금리 +10bp  
↳ OIS(Overnight Index Swap) : 美 금융기관과 일정기간 동안 1일물 변동금리와 교환하기로 약정된 고정금리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은 향후 FOMC의 금리인상 속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美 국채금리는 큰 폭 하락하고 이에 따라 달러는 약세를 보였으며,  
주요 주가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하였습니다.\*\*

\* 금리선물시장에 반영된 3월 FOMC 금리인상 확률(Fedwatch, %)

: [+50bp] (3.10)40.2→(3.13)0.0 [+25bp](3.10)59.8→(3.13)61.3 [동결] (3.10)0.0→(3.13)38.7

\*\* 3.10일 대비 3.13일 증감 : (美 S&P)△0.15% (나스닥)+0.45% (유로스톡스)△3.14%  
(美 국채, 10년물)△13bp (美 국채, 2년물)△61bp (달러인덱스)△0.91%

금번 사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긴축이  
지속되면서 취약부문의 금융불안이 불거져 나온 경우로  
현 시점에서 동 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습니다.

## 【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점검 및 평가 】

한편,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은 미국 등의 대응조치 이후 외국인자금 유입 등으로  
코스피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다수인 코스닥도 소폭 반등\*했으며,  
국채시장은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글로벌 긴축 전망이 약화되면서 국채금리가 큰 폭 하락\*\*했습니다.

\* 코스피(pt) : (3.9)2,419.09 → (3.10)2,394.59 → (3.13)2,410.6

코스닥(pt) : (3.9)809.22 → (3.10)788.60 → (3.13)788.89

\*\* 국채 금리(3년물, bp) : (3.9)3.858 → (3.10)3.703 → (3.13)3.435

향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겠으나,  
현재까지는 국내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인 양상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은 자산·부채 구조가 실리콘밸리 은행과 상이하고<sup>4)</sup>, 유동성이 양호<sup>5)</sup>하여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초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 및 4대 공적연금, KIC, 우정사업본부 등 투자기관 등의 관련 은행들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현 단계에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아직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불안요인까지 겹치면서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계기관 합동점검체계를 24시간 가동하여 국내외 시장상황을 실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취약요인을 지속 점검·보완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관계기관 공조하에 신속히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 총자산중 유가증권 비중(%) : (은행) 18, (저축은행·여전사) 10 이내

5) 유동성 비율(%) : (은행) 전 은행 LCR 100% 초과, (저축은행) 177.1 (카드) 385.4 (캐피탈) 202.3